

要 望 書

日本国 大阪府議会 議長 岩見 星光 殿

この度、貴大阪府傘下の博物館を統廃合するという知らせに接した当協会一同は大きな衝撃を受けました。

私たちは、御府の博物館の形態と文化財保護行政体制を、世界で最も優れた先進制度として高く評価してきました。そして、御府をモデルとして、韓国の博物館設立と運営、文化財保護行政体制の安定のために、これまであらゆる努力を傾けてきた私たちとしては、御府の今回の方針に驚きを隠せません。

それは、日本文化の中心である大阪府で起こった出来事であるという点で、日本全国はもちろん韓国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各国の文化財保護および文化財関連政策に甚大な影響が及ぼすことが自明であるためです。

博物館の社会的使命、役割、存在意義、重要性を、改めて取り上げて論じる必要はないでしょう。

私たちは貴国、特に御府の特化された博物館と文化財保護行政体制・政策に注目し学習してきました。例えば、泉北考古資料館は陶邑窯跡群出土の須恵器を公開・展示する博物館として、古代日韓関係史を研究するうえで、最高の役割を果たしております。一言で言えば、日韓両国の考古学の揺籃ともいえる場所であると考えております。のみならず、弥生文化博物館、近つ飛鳥博物館、狭山池博物館も貴国の弥生時代と古墳時代の各々特色を持った専門博物館として、古代日韓交流の研究に大きく貢献していることは周知のところ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御府の博物館の役割と輝かしい実績が、日韓両国をはじめとする東アジアの学問の発展はもちろん、東アジア各国・各国民の相互理解の増進と共同の利益に大きく尽くしていることを私たちは確信しております。

このような点から私たちは御府のこのような博物館は、日本の文化的自負心を越えて、アジアの誇りとすべき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もちろん、我々は御府の財政難を理解できないのではありません。

しかしながら、博物館の価値は決して金銭で換算できる性格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韓国の中央政府と地方自治体も、御国と御府のように深刻な財政難に直面しておりますが、現在、韓国の国立博物館と公共博物館が、入館の無料化を志向していることをご勘案下さい。韓国の博物館のこのような趨勢は、御国と御府の博物館および文化財政策に刺激された点が少なくありません。

大阪という土地は、日本の古代文化の中心地であるとともに、日本の古代文化を象徴する場所であります。

このような大阪の博物館の形態と文化財保護・政策を私たちは常に注目してきました。そして、私たちは御府のこのような点を韓国博物館の運営と文化財政策のベンチマーキングとしてきまし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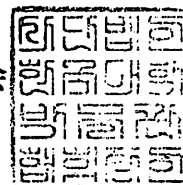
このような点で日本の古代文化の中心にある御府の最近の方針が事実であるとすれば、これは御府と御国の次元を越えて、韓国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共通の問題であるといわざるをえません。これは韓国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各国の博物館および文化財政策に甚大な打撃を与えるものであります。そして、取り返しのつかない汚点を残すことになるでしょう。御府の方針は、韓国をはじめとするアジア各国に甚大な影響は与えるものであります。そして、真っ先に韓国が直接的な影響を受けることは火を見るよりも明らかであります。最終的には、アジア各国の文化財政策を挫折させる結果を招くでしょう。

文化財政策において、アジアの先導的位置にある御国、特にその中心である御府が、これまでのようにアジアの文化財政策の希望となられることを切に願っております。

ここに当協会は御府の博物館の存続はもちろん、さらに一步進んで、これらの博物館を一層発展させ、アジアの鑑となることを懇切に要望する次第であります。

2008. 5. 16

(社) 韓国大学博物館協会



江陵大学校博物館、江原大学校博物館、建国大学校博物館、京畿大学校博物館、慶南大学校博物館、慶北大学校博物館、慶北科学大学博物館、慶尚大学校博物館、慶星大学校博物館、慶州大学校博物館、慶熙大学校博物館、慶熙大学校自然史博物館、慶熙大学校ヘジョン博物館、啓明大学校行素博物館、高麗大学校博物館、空軍士官学校博物館、公州大学校博物館、公州教育大学校博物館、関東大学校博物館、光州教育大学校博物館、国民大学校博物館、群山大学校博物館、檀国大学校石宙善記念博物館、大邱教育大学校博物館、大邱大学校博物館、大邱韓医大学博物館、大邱保健大学インダン博物館、大邱カトリック大学校博物館、大田保健大学博物館、大田大学校博物館女、徳成子大学校博物館、東国大学校博物館、東国大学校慶州博物館、同徳女子大学校博物館、東新大学校博物館、東亜大学校博物館、東義大学校博物館、明知大学校博物館、木浦大学校博物館、培材大学校博物館、釜慶大学校博物館、釜山大学校博物館、釜山女子大学博物館、三育大学校博物館、祥明大学校博物館、西江大学校博物館、ソウル大学校博物館、ソウル大学校美術館、ソウル市立大学校博物館、ソウル女子大学校博物館、西原大学校博物館、鮮文大学校博物館、成均館大学校博物館、誠信女子大学校博物館、世宗大学校博物館、水原大学校博物館、淑明女子大学校博物館、淑明女子大学校チョンヨンヤン刺繍博物館、淑明女子大学校入れ墨美術館、順天大学校博物館、崇実大学校博物館、新羅大学校博物館、亜州大学校博物館、安東大学校博物館、延世大学校博物館、延世大学校ドンウン医学博物館、延世大学校原州博物館、嶺南大学校博物館、龍仁大学校博物館、蔚山大学校博物館、円光大学校博物館、威徳大学校博物館、陸軍士官学校博物館、梨花女子大学校博物館、梨花女子大学校自然史博物館、仁済大学校博物館、仁荷大学校博物館、全南大学校博物館、全北大学校博物館、全州教育大学校博物館、全州大学校博物館、済州大学校博物館、朝鮮大学校博物館、昌原大学

校博物館、青江文化産業大学漫画歴史博物館、清州教育大学校博物館、清州大学校博物館、春川教育大学校博物館、忠南大学校博物館、忠北大学校博物館、忠州大学校博物館、忠清大学博物館、韓国教員大学校博物館、韓国外国語大学校博物館、韓国航空大学校航空宇宙博物館、韓国海洋大学校博物館、韓南大学校博物館、韓南大学校自然史博物館、翰林大学校博物館、韓神大学校博物館、漢陽大学校博物館、海軍士官学校博物館、協成大学校聖書考古学博物館、弘益大学校博物館

要 請 書

日本國 大阪府議會議長 岩見 星光 貴下

今般, 貴 大阪府傘下の 박물관을 統廢合할 것이라는 소식을 집한 當協會 一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貴府의 박물관 형태와 文化財保護行政體制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先進制度로서 높게 평가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貴府의 이런 점을 모델로 삼아, 한국의 박물관 설립과 운영, 문화재보호행정체계의 안정을 위하여 지금까지 온갖 노력을 기울여 온 우리로서는, 貴府의 이번 방침이 여간 당혹스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특히 일본 문화의 중심, 大阪府의 일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전역은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세아 각국의 문화재보호 및 문화재관련정책에 미칠 영향은 至大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의 사회적 사명, 역할, 存在意義,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貴國, 특히 貴府의 특화된 박물관들과 문화재보호행정 체제정책을 주목하고 학습하여 왔습니다. 이를테면 泉北考古資料館은 陶器窯跡群 출토의 須惠器를 공개, 전시하는 박물관으로 古代韓日關係史를 연구하는 데 으뜸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한일양국 고고학의 요람과 같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彌生文化博物館, 近つ飛鳥博物館, 狹山池博物館도 귀국의 彌生時代와 古墳時代의 각각 특색을 지닌 전문박물관으로서, 古代韓日交流의 연구에 크게 공헌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貴府의 박물관들의 역할과 눈부신 실적이, 韓日兩國을 비롯한 東亞細亞의 학문발전은 물론, 동아시아 각국·각국민의 상호이해의 증진과 공동의 이익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貴府의 이러한 박물관들은 일본의 문화적 자긍심을 넘어, 아세아의 자랑으로 여겨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貴府의 財政難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박물관의 가치는 결코 金錢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한국의 중앙정부와 地自體도, 貴國과 貴府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현재 한국의 국립박물관과 공공박물관들이 入館의 無料化를 志向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박물관의 이러한 추세는 귀국과 귀부의 박물관 및 문화재정책에 자극된 바가 적지 않습니다.

大阪의 땅은 日本 古代文化의 中心地이자, 바로 일본고대문화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이러한 大阪의 박물관들의 형태와 문화재보호정책을 우리는 항상 주시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貴府의 이런 점을 한국박물관의 운영과 문화재정책의 벤치마킹으로 삼아왔습니다.

이런 점에서 일본고대문화 중심에 있는 貴府의 최근의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는 貴府와 貴國의 차원을 넘어, 한국을 비롯한 아세아 공동의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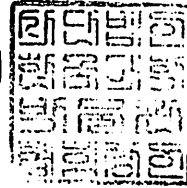
을 비롯한 아세아 각국의 박물관 및 문화재정책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貴府의 방침은 한국을 비롯한 아세아 각국에 끼치는 영향은 너무나 큼니다. 당장은 한국이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입을 것임은 明若觀火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세아 각국의 문화재정책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문화재정책에 있어 아세아의 先導的 位置에 있는 귀국이, 특히 그 중심에 있는 貴府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세아의 문화재정책의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에 當協會는 貴府의 박물관들의 존속은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들 박물관을 더욱 발전시켜 아세아의 龜鑑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8. 5. 16

(사) 한국 대학 박물관 협회



강릉대학교박물관, 강원대학교박물관, 건국대학교박물관, 경기대학교박물관, 경남대학교박물관, 경북대학교박물관, 경북과학대학박물관, 경상대학교박물관, 경성대학교박물관, 경주대학교박물관, 경희대학교박물관,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계명대학교 행소박물관, 고려대학교박물관, 공군사관학교박물관, 공주대학교박물관, 공주교육대학교박물관, 관동대학교박물관, 광주교육대학교박물관, 국민대학교박물관, 군산대학교박물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대구교육대학교박물관, 대구대학교박물관,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 대구보건대학 인당박물관, 대구가톨릭대학교박물관, 대전보건대학박물관, 대전대학교박물관,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박물관, 동국대학교 경주박물관, 동덕여자대학교박물관, 동신대학교박물관,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의대학교박물관, 명지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배재대학교박물관, 부경대학교박물관, 부산대학교박물관, 부산여자대학교박물관, 삼육대학교박물관, 상명대학교박물관, 서강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서울여자대학교박물관, 서원대학교박물관, 신문대학교박물관, 성균관대학교박물관,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세종대학교박물관, 수원대학교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 정영양자수박물관, 숙명여자대학교 문신미술관, 순천대학교박물관, 숭실대학교박물관, 신라대학교박물관, 아주대학교박물관, 안동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박물관, 연세대학교 동은의학박물관, 연세대학교 원주박물관, 영남대학교박물관, 용인대학교박물관, 울산대학교박물관, 원광대학교박물관, 위덕대학교박물관, 육군사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이화여자대학교 자연사박물관, 인제대학교박물관, 인하대학교박물관, 전남대학교박물관,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교육대학교박물관, 전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조선대학교박물관, 창원대학교박물관, 청강문화산업대학 만화역사박물관, 청주교육대학교박물관, 청주대학교박물관, 춘천교육대학교박물관, 충남대학교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충주대학교박물관, 충청대학교박물관,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한국의국어대학교박물관, 한국항공대학교 항공

우주박물관, 한국해양대학교박물관, 한남대학교박물관, 한남대학교 자연사박물관, 한림대학교
박물관, 한신대학교박물관, 한양대학교박물관, 해군사관학교박물관, 협성대학교 성서고고학박
물관, 홍익대학교박물관